



LG전자가 지난해 'MWC 2019'에서 전시장을 꾸민 모습. /LG전자

MWC, 33년만에 행사 첫 취소

대형기업 전시참가 연이어 취소
LG전자, 신제품 공개행사 연기
“국제적 우려에 행사개최 불가능”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0'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결국 취소됐다. MWC 행사가 취소된 것은 33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대형 기업들이 MWC 2020 전시 참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특성 상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MWC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존 호프먼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국제적 우려와 여행 경보 등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해 MWC 2020 개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MA는 그간 주요 업체들이 MWC 참가를 취소하는 상황에서도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LG전자, 인텔, 페이스북, 아

존, 소니, 시스코 등 주요 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잇따라 MWC 불참 계획을 밝혀 결국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이번 MWC에서 신제품 스마트폰 'V60 씽큐'와 'G9 씽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날짜를 미뤄 추후 신제품 공개행사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오는 24~27일 열릴 예정이던 MWC는 세계 최대의 통신·모바일 전시회로, 전 세계 약 200개국에서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인다. 특히 전시회 특성상 손으로 기기를 만져보고 직접 써보는 체험이 많고, 5000명~6000명의 중국인 관람객들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려가 제기됐다. 애초 관계 당국은 MWC를 통해 4억 7300만 유로(약 6093억원)와 지역경제에 1만4000개 이상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때문에 스페인 부통령, 개최지인 바르셀로나 시장 등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할 어떤 공중보건적 이유도 없다면서 참가업체의 진정을 호소할 바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코로나 공포 꺾였나...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

금값진정, 공매도 피크, 증시꿈틀

기관 매도 늘면서 코스피 등락 거듭
미국 3대 지수 사상 최고 수준 기록
“코로나19 확산, 절정은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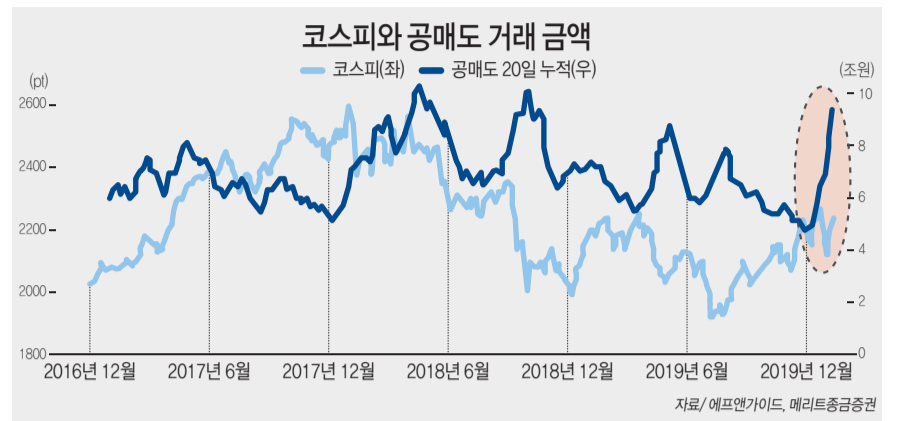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더 완화적인 태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본격적인 증시 반등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1차 반등 시작?... 금값도 고공행진 'STOP'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정황은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42포인트(-0.24%) 내린 2232.96에 마감했다.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기관 매도가 늘면서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막판에 소폭 내렸다.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으나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

중국증시도 선반하고 있다는 평가다. 같은 날 상하이종합지수는 291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흐름은 끊겼지만 지난 3일 대폭락(-7.72%) 당시 낙폭을 반 이상 돌렸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목소리가 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08포인트(0.94%) 오른 209551.42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65%, 나스닥 지수도 0.9% 올랐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증시의 긍정적 흐름은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위험자산을 다시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외에서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을뿐더러 원·달러 환율도 위안화 환율과 움직임이 같이하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위험자산 기피 심리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며 “위안화 환율도 중국 당국의 시장 안정화 의지 등을 반영해 상방 경직성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값도 고공행진을 멈췄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 따르면 금 가격은 1g당 5만 9911.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사태 정점이던 지난달 31일 6만542.56원보다 1.05% 떨어졌다.

◆'코로나 공포' 멎었나... 높아진 공매도 비중

전문가들은 증시에 미치는 '코로나 공포'가 꺾였다고 진단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을 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인 4% 수준을 크게 밑돌 것”이라면 서도 “중국 경기기가 2분기부터 V자 반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내놓을 통화·재정정책은 물론 소비 부양정책 등 양적완화 및 제2의 (농촌에 자동차를 보급하는) 기차하향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충격이 큰 만큼 부양강도 역시 기대보다 강할 것이라는 얘기도

윤여삼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강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향에 따라 반등을 기대하고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와 실물경기 둔화 정도를 가늠하며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그는 “코로나19 공포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위험자산에 미치는 전염병 영향은 한 달 내에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일정 수준 하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다소 부진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100포인트 전후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추가 반등 종목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험 종목을 피할 때”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150의 공매도 잔고비율(공매도잔고수량/상장주식수)은 1.95%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증가했다. 코스닥 훈풍과 함께 1.8%대에 머물던 비율은 코로나19 이슈가 불거지며 1.90% 전후에서 맴돌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몰리면 주가 하락 현상이 일어난다.

서상영 팀장은 “코로나19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해소 단계는 아니다”면서 “당분간 지수 상승폭 확대를 이어가기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사흘째 신규환자 없어 ... 안심 단계는 아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국내 환자 28명, 퇴원자 7명
진단검사 받는 사람은 증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주춤하고 있다.

국내 환자는 총 28명으로 확진일을 기준으로 사흘째 신규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퇴원자는 7명으로 남은 환자 가운데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환자도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8번 환자(31세 여성, 중국인)가 지난 10일 확진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로 발생한 환자는 없다.

전날까지 퇴원한 7명(1·2·3·4·8·11·17번 환자)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 21명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퇴원을 고려하는 환자는 1~2명 있다.

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1명은 폐렴으로 산소공급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공호흡기 치료나 투석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이 환자는 최고령 환자인 25번 환자(74세 여성, 한국인)나 폐 기저질환이 있는 16번 환자(43세 여성, 한국인)는 아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오늘 퇴원 예정인 환자는 없지만, 퇴원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속 한두 분씩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하루 검사 요청 건수는 500~800건에 달한다.

검사를 받은 사람 대다수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확진자 제외)은 5천 769명이며, 이 가운데 5099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670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아직 코로나19 유행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보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금융위, 신규대출·만기연장... 中企·소상공인 300억 이상 지원

금융부문 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
자택격리 제조업체 특별자금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등 300억원이 넘는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조달되지 않자 완성차 협력사들이 운영자금 요청에 나섰으며, 거래대금을 수급해야 할 직원이 자택격리된 제조업체는 특별자금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부문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단 3일 만에 피해상담 문의가 5880건이나 쏟아졌다. 대상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750건 ▲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손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기업은행 268건 ▲신용보증기금 198건 등이다.

상당 유형은 신규 대출·보조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여행 ▲음식점 ▲도·소매(이류) ▲레저 ▲키즈카페 ▲학원 ▲세탁소 ▲헬스 ▲피부관리실 등 고객과 접점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

영업자 영위업종이 많았다. 외출 자제와 여행 취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 소상공인은 운영자금 지원과 만기도래 자금의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전자·자동차 부품 업체와 창고업, 운수업체의 문의도 있었다.

정책금융은 대응방안 발표 이후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 총 201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 피해기업에 신규대출 18억원의 자금이 공급됐고, 만기연장이 25억원 규모다. 보증비율·보증료가 우대되는 신규보증으로 36억원이 지원됐으며, 피해기업 및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도 약 118억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진행경과와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파악해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שמ 기자 smahn1@